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3주일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제2조,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아리마태아 요셉 찬양송 -- 75
- 향료가진 여인 찬양송 ---- 76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요한1서 1,1~7 -- 518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98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기타 성가, 성모송, 영성체성혈
송은 부활절 의식서 참고)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

주 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사도들에게 알린 이들은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 이었다. 이른바 향유 가진 여인들이다.

이 여인들은 누구인가? 이름이 알려진 일곱 명은 다음과 같다.

- 막달라 여자 마리아 - 일곱 마귀가 들렸던 여인
- 살로메 - 야고보 사도와 요한 복음사도 어머니
- 요안나 - 헤로데의 신하였던 쿠자의 아내
- 마리아와 마르타 - 라자로의 남매
- 마리아 - 글레오파의 아내
- 수산나 - 주님과 사도들을 돋던 여인
이들은 부활을 확증하는 사실을 전해주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
았던 참된 제자들이었다.

용기 있는 믿음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주 님의 제자들은 물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삼 년을 생사 고락하며 지내던 제자들조차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모두들 유다인들이 무서워 흩어지고 몇몇 여인들만이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의회 의원으로서 고위직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돌아가시자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마르코 15,43). 시신을 넘겨 받은 요셉은 자신을 위해 파놓은 새 동굴 무덤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장사지냈다.

요셉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무덤으로 가게 하여 그들이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어 믿음을 증언하기 시작하였다. 수 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용기 있게 고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교부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고백자들과 은수자(隱修者)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보다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남을 의식하여 부끄

러워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나약해져버린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미 상실한 것 또한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부끄러워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없는 것은 주위의 눈을 너무 의식한 까닭이다. 하느님 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는 자신에게는 물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향료 가진 여인들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에 기적같이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교인의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며 지내야 한다. 성호를 짓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해야 하며, 금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각종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적인 것이다. 기도와 성서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영적 생활을 실천하여 영적 경험을 쌓고 믿음을 성숙시켜야 한다.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의 자세이다.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믿음의 자세로 살고 있다면 마치 하느님을 배반한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실천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주위의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의 힘

아타나시아 봉사자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코스타와 마리아는 교육을 많이 받은 40대로서 사회에서 잘나가는 부부였습니다. 마리아와 달리 코스타는 냉담자였고 12살 아들은 5살 때부터 몸이 마비된 장애아였습니다.

2006년 여름에 마리아는 아토스 성산의 한 원로 수도사가 방문차 아테네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원로는 영적 은총을 많이 받은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그 수도사를 집으로 초대해 장애 아들을 보게 하자고 설득했고 코스타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집에 온 수도사에게 부부는 자기 방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달라고 청했지만 놀랍게도 수도사는 아이의 방이 아니라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코스타가 “여보, 도대체 어떤 분을 모셔온 거요? 저분이 거실과 침실도 구분을 못 하니...” 마리아는 부끄러웠고 당혹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사는 황당해하는 부부를 맞은편에 앉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코스타,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까?” 코스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마리아, 그동안 몇 년이나 성체성혈을 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아주 오랫동안입니다...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님...”

“그동안 낙태는 몇 번이나 했나요?”

“네 번입니다.” 부끄러워하며 그녀가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마리아, 첫 번째 남편과는 왜 이혼했나요?” 마리아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양귀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수도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부부에게 엄격하지만, 애정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곧장 거실로 들어온 이유입니다. 이 가정의 큰 질병은 바로 그 대들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은 순수하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 장애라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수도사님,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성직자가 아니고 단지 수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당의 신부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기쁜 사제로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부는 8월 4일에 신부에게 눈물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으로 고백성사를 드렸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신부는 죄 사함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 또한 눈물을 머금은 채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두 분의 솔직하고 겸손한 회개와 고백이 저를 감동케 했습
(4면으로 계속)

■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 참석

한국 동행모임 주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식'이 지난 4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에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도식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쟁 범죄는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전쟁은 수치와 고통, 눈물과 난민,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만 남길 뿐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 용미리 부활 성당 성찬예배

지난 5월 1일 토마 주일에 로만 카프착 신부는 용미리 부활 성당에서 슬라브어권 신자들과 성찬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성찬 예배 후에는 묘지를 다니면서 기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의류 후원

한국 정교회 대교구는 <사단법인 한국사랑 나눔공동체>가 각 회사에서 후원 받은 약 43만 달러 가치의 의약품과 의류를 기증 받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지난 4월 30일(토)에 열린 후원품 선적 행사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고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수도원 방문

지난 5월 1일 토마 주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요한 보제와 함께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와 성찬예배를 집전하였고, 소티리オス 대주교와 아가티 수녀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참석한 신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3면에서 계속)

니다. 모레는 주일이며, 주님의 변모 축일(8월 6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성당으로 와서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부부는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성당에 갔으며, 아주 오랜만에 성체성혈을 받아 모셨

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했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집으로 돌아온 소리를 들은 순간, 아이는 기쁨에 넘쳐 달려갔으며,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